

나주 세지면 오리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연쇄 감염 우려

전남 올 가을 들어 첫 사례...3만7000마리 살처분 돌입 전국 사육 오리 54% 집중 나주·영암 등 방역 강화 나서

나주시 세지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가족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올가을 들어 전남에서 발생한 첫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로 전국 사육 오리 절반이 집중된 이른바 '오리 사육 벨트'인 나주에서 시작된 AI가 연쇄 감염으로 번질까 가족 방역당국이 우려하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들어 전국에서 모두 3개

농장으로부터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지난 8일 충북 음성 매주리농장에서 첫 발생한 후, 9일 음성 육용오리 농장에 이어 이번엔 나주 세지 육용오리 농장에서도 확인됐다.
의심축이 발생한 나주 오리농장은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한 사육단계별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지난 12일 오전 검출됐다. 의심축이 나온 것이다. 사육단계별 검사는 겨울철 위험기간 등

안 AI 조기 검출을 위해 출하 전까지 3회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고병원성 여부 검사 결과 지난 13일 고병원성으로 판명났다.
이에 앞서 전남 가족 방역당국은 지난 12일 의심축(고병원성 AI 의심 가금류) 발생과 동시에 관련 절차에 따라 사육 중이던 오리 3만7000수에 대한 살처분에 돌입했다. 지난 12일부터 강화된 AI 살처분책에 따라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500m~1km 범위 내 오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처분하는 방안을 오는 26일까지 적용하지만, 나주 세지 발생농장 반경 1km 범위에는 오리 사육 농장이 없어 추가 살처분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또한, 가족 방역당국이 10km 내 닭·오리 73 농가

와 역학 관련 41 농가에 대해서 정밀검사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농장 계열도 축장에 대한선 AI 검사를 2배로 강화했으며, 동일 계열 농가 35 농가에 대한 일제검사를 진행 중이다.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AI의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농가는 무엇보다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농가 입구에서 출입 사료 차량을 추가로 소독하고, 농장 마당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전남도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가에 대해 ▲철새도래지·소하천 방문 금지 ▲차량·사람 출입 통제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닭·오리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에는 257 농가에서 오리 약 434만 수를 사육 중이다. 이는 전국 800만 수 대비 54% 수준이다. 닭은 전남 349 농가가 2324만 수를 기르는데, 이는 전국 1억7300만 수의 13% 수준이다. 오리 농가 절대수가 나주와 영암에 집중돼 이들 지역을 오리 사육 벨트로 부르기도 한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21건(닭 3, 오리 18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381만수가 살처분됐다. 전국에서는 109건이 발생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2993만 수가 살처분됐다. /김형호 기자 khh@

'5·18 정신적 손배' 1500여명 집단 소송

5·18민주화 운동 당시 불법 체포·구금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추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오월단체들이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14일 오월단체(5·18 유족회·부상자회·구속 부상자회)에 따르면 단체별로 11월 내에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까지 신청자는 총 1500여명을 넘겼다.
당장 유족회는 170여명의 신청을 받았고, 이달 말께 소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구속부상자회도 소송 회원을 상대로 오는 16일까지 1차 소송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총 1100여명의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추가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다. 부상자회는 현재 300여명의 회원이 추가 손해배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접수를 완료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광주지법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5·18민주화운동으로 고초를 겪은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

송에서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 4000만~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짧게는 2~3개월에서 길게는 10여 개월까지 구금된 피해자들 각각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다.
당초 5·18 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간주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제한한 5·18 보상법을 위헌이라는 결정(광주지법 5월 31일자 6면)을 받아들였다. 또 지난 8월 대법원 역시 비슷한 사건을 심리하면서 이 결정에 근거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광주지법 8월 25일자 7면)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송기석 변호사는 "청구 금액의 절반 수준에서 손해액이 산정됐다"면서 "추가로 집단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 유학생 농촌 체험 전남농산어촌유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농촌체험 현장학습이 지난 12일 곡성군 오곡면 봉조마을에서 열린 가운데 박서홍 농협전남본부장과 장성용 전남도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대붕감 따기 체험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대 대학원, 전기 석박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15~26일 홈페이지·방문 접수
광주대학교 대학원이 '2022학년도 전기 석·박사과정'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15일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이며, 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호심관 4층 교학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신입생 석사학위 과정 160명, 박사학위 과정 40명, 편입생 21명이다. 외국인 등 정원 외 인원은 별도 선발한다.
특히 광주대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회계세무학과와 방재안전학과를 신설해 모집한다. 이와 함께 박사과정에 창업학과와 방재안전학과를 신설, 우수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세부 모집인원은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공학·예체능·자연과학계열 29개 학과 석사과정에 신입생 70명과 편입생 12명, 박사과정에 단독과 협동과정 계열 15개 학과에서 신입생 35명과 편입생 5명을 선발한다.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신입생 30명과 편입생 3명, 박사과정 신입생 5명과 편입생 1명을 모집한다. 또 보건상당정책대학원에는 인문사회·자연과학·예체능계열 11개 학과에서 석사과정 신입생 60명을 선발한다.
면접 및 실기전형은 12월 9일부터 13일에 실시되며, 12월 23일 오후 2시 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로스쿨, 신규 재판연구원 5명 최종 합격 총장축제 홍보승차권 배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2022년 신규 검사 임용시험 4명 최종 합격에 이어, 2022년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에서 5명이 최종 합격했다.
14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각 고등 법원 권역별로 진행된 이번 '2022년 재판연구원 선발전형'에서 광주 2명(김희주, 마예현)을 비롯해 서울 1명(유환진), 수원 1명(정희수), 대전 1명(오주성) 등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재판연구원 임용은 1차 서류전형에서 학업성과 법률분야 실무수습 경력 등을 심사해 필기면제

자와 2차 필기전형 대상자를 선발한 뒤, 2차 민형사 필기시험을 거쳐 3차 구술평가를 통해 지원자의 실무능력을 다각도로 평가해 선발한다.
재판연구원은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등 판사를 보조하는 법률전문가로 향후 경력 법관 임용에 있어서 선발이 유력한 판사 후보군이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12년 1기 졸업생부터 2022년 11기 졸업생까지 매년 4~5명씩 총 48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동구가 '제18회 추석의 총장축제' 개최를 앞두고 홍보를 위한 '광주지하철 일회용 승차권(보통권)' 2000 개를 제작·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승차권에는 축제 마스크트 총장이 금남이를 새겨넣었다. 동구는 한정 제작된 승차권을 문화전당역과 광주송정역 등 방문객·관광객 이용이 빈번한 역사 위주로 우선 배포할 계획이다. 승차권은 광주지하철 1호선 20개 역사를 통해 마포·분실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